



2023 SJC

신갈중앙교회 말씀암송 가이드

말씀암송 이렇게 하세요





강의 QR코드

카메라로 이 QR코드를 찍으면 강의 영상으로 연결됩니다.

강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Sample

말씀암송 실습 할 때 활용하세요.

5.7. 주일 암송구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베드로전서 2장 19~20절]

01 기도하기

말씀을 읽기 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주 간단하고 기본적인 것 같지만,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는 것과 그냥 읽는 것은 분명한 차이를 가져오기에, 잠시라도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TIP. 예시 외에 나의 언어로 자유롭게 충분히 기도하고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

주여, 내 눈을 열어 말씀의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게 하소서.

주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게 하소서.

”

MEMO.

02 말씀읽기

바른 이해와 묵상을 위해서는 바른 읽기가 필요합니다.

한 구절만을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면, 자칫 본문의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이해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가급적 말씀을 읽을 때는 문맥을 고려하여 구절의 앞뒤 구절을 함께 읽으며 전체의 의미를 고려하여 말씀을 읽습니다.

TIP. 가급적 1회 이상 시간을 내어, 성경책을 가지고 집중해서 읽습니다.

1. 성경암송은 “주일설교”의 흐름 안에서 채택 된 구절이므로,
주일설교 본문 전체를 집중해서 읽는다.
예시) 5/7 주일 “베드로전서 2장 19~20”절이 나오게 된 주일설교 본문은
“사무엘상 19장 1~24절”이므로 함께 읽어본다.
2. 베드로전서 2장 19~20절을 읽을 때, 함께 베드로전서 2장 전체를 읽어보기.
3. 이후에 베드로전서 2장 19~20절을 읽어보기.
→ 전체의 숲을 먼저 살펴본 후, 나무를 자세히 보는 방식.

MEMO.

03 읊조리기

말씀암송의 핵심은 반복해서 읽고, 읊조리는 데에 있습니다.

이미 다 아는 내용이라는 편견을 내려놓고, 새롭게 말씀하실 성령님을 기대하는 마음과 진지한 자세로 말씀을 반복적으로 읽습니다.

TIP. 읊조리기 단계에서는 뜻을 찾기 위해 해석하거나 억지로 적용점을 찾기보다 말씀을 반복적으로 읽는 것에 집중합니다.

1.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을 정해서, 잠자기 전에 10번 소리내어 읽기.
2. 핸드폰 배경화면에 해놓고, 핸드폰을 열 때마다 꼭 집중해서 한 번 읽기.
3. 집 식탁, 화장실 등 내 시선이 자주 가는 곳에 직접 말씀구절을 적어서 붙여놓고, 수시로 읽기.
4. 가족들과 시간을 정해두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돌아가며 소리내어 말씀을 반복적으로 읽고 기도하기.
5. 직접 손으로 말씀을 쓰면서, 집중하며 말씀 읽기.
6. (충분히 반복해서 읽은 경우) 성경구절을 단어별로 끊어서, 글자를 보지 않고 천천히 소리내어 읊어보기.

MEMO.

04 질문하기

좋은 묵상의 출발점은 좋은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구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질문을 던지고, 생각해보는 과정을 통해 풍성하고 깊은 묵상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TIP.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난 질문은 모두 적어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질문을 이어가며 생각하고 고민합니다.

Q.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것은 무엇일까? 나는 부당하게 고난을 받은 적이 있었을까?

- 1) 고난을 받은 적이 있다면 어떤 일이었고, 나는 어떻게 반응했었을까?
- 2) 고난을 받은 적이 없다면 왜 나는 고난을 받지 않았을까?

Q.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는 것이 왜 아름다운 것일까?

- 1) 왜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인내해야 할까?
- 2) 오늘 하루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는 장치가 있다면 무엇일까?

MEMO.

05 적어보기

말씀을 읽으며 드는 생각과 마음을 노트에 직접 적어보는 것입니다.

생각이 달아나지 않도록, 글로 적는 것은 더욱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좋은 방법입니다.

구절에 대한 질문을 적을 수도 있고, 그 질문에 대한 답,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적어보고, 실제 실천하기를 힘쓸 때 말씀의 능력을 맛볼 수 있습니다.

TIP. 질문에 대한 자신의 답, 혹은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천할 것, 반복적으로 생각나는 단어 등을 자유롭게 적습니다.

[질문]

Q.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는 것이 왜 아름다운 것일까?

A.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인내하는 것이 가장 적극적인 믿음의 반응이기 때문인 것 같다. 나는 내 삶이 내 힘으로 통제되지 않을 때 답답함을 심하게 느꼈다. 그래서 안정적인 상태를 깨는 어려움이 생기면 참지 못하고 주님보다 앞서서 빨리 해결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럴수록 문제는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곤 했다. 반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매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인내의 시간을 보냈을 때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건져 주시는 것을 경험했다. 내가 참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책임감 없이 문제를 회피하는 것처럼, 겁이 많아 부딪힐 용기가 없는 것처럼, 또는 미련하여 당하기만 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며 맡기는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다.

[실천]

저번 주에, 회사에 가서 상사의 부당한 평가를 들을 때 참 억울하고 화가 났다.

이번 주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순간 주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며 기도하며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겠다.

[적어보기]

“구절을 읽고 묵상할수록, 고난 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각에서 떠나질 않는다.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를 바라보자.”

06 기도하기

일련의 과정이 그저 한 주의 숙제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실제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마무리 합니다.

TIP. 순서의 마지막으로 기도를 했다고 해서 성경암송은 멈추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다시 말씀을 읽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

하나님, 이 말씀이 지식으로 머무르지 않게 해주세요.

이 말씀이 제 삶을 다스리길 원합니다.

선택의 순간마다, 말씀의 가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MEMO.

07 나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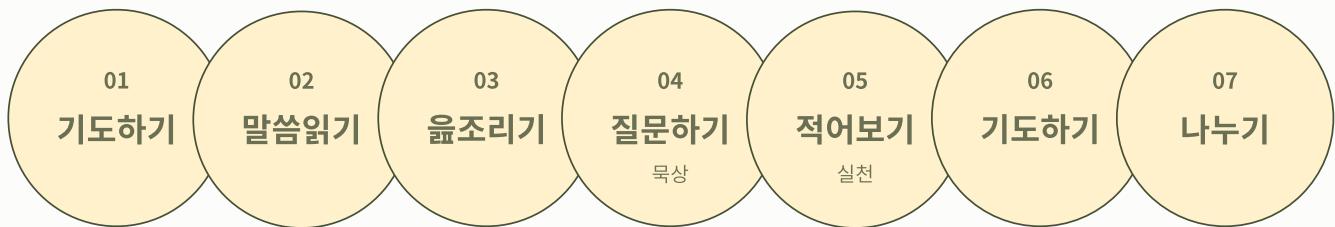
나눌 때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한 주간 읽고, 묵상한 말씀에 대한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대화하기, 교회의 사랑방 모임에서 나누기 등을 통해 다양한 각도로 말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습니다.

TIP. 3C 활용 → CONTEXT : 상황 / CHALLENGE : 도전 / CHANGE : 변화

- CONTEXT(상황) : 저는 요즘에 참 크리스천으로 산다는게 억울하고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도 있어요. 누군가가 화를 낼 때, 참아야 하고, 또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이유 없이 부정적 소리를 듣고, 차별 받기도 하구요.
- CHALLENGE(도전) : 하지만 말씀에 보니,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 자체가 아름답다고 말씀하더라구요. 주님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 위한 선한 행동을 하셨는데, 고난 당하셨잖아요. 이를 생각하니 참 뭉클하고 눈물나더라구요. 저도 이 주님을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 CHANGE(변화) : 놀랍게도 한 주간 이 말씀을 읽고, 써보기도 하고, 기도를 했는데 상황과 환경은 변하지 않고 여전히 힘들었는데, 하나님과 한층 더 관계가 깊어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의 의미가 새롭게 와닿아서, 더 뭉클했고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더욱 감사해지는 한 주를 보냈고, 제 마음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MEMO.

순서정리(기억하기)



권면

1. 매 순간 모든 절차대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많이 반복하고, 중점적으로 해야 할 부분은 "읊조리기"와 "질문하기"입니다. 상황에 맞춰 진행하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2. 핸드폰 배경화면에 두고 잠깐씩 자주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적어도 일주일에 2~3회 이상은 시간을 따로 구분하고, 준비하여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순서를 따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말씀을 읽고, 질문하고, 생각하는 과정 중에 그 주의 주일설교 말씀을 다시 들어보고 정리한 후, 다시 말씀을 묵상하면 더욱 풍성히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4. 본질은 순서와 형식을 그대로 지키는 것 자체보다, 말씀을 읽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중심과 실천이 중요합니다.
5. [나누기] 사람들에게 나의 생각을 말하기 어려울 경우, "적어보기"에서 적은 글을 그대로 읽는 것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시 119:97)